



제 2121호 2020. 2. 2. 주님 봉헌 축일 · 축성 생활의 날

제1독서 : 말라기서 3,1-4

제2독서 :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2,14-18

복 음 : 루카 복음서 2,22-40 또는 2,22-32

발 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

주 소 : 03083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56 가톨릭 청소년회관 내 '작은마음'

이메일 : littlemm1@hanmail.net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그림_ 이수빈 소화터레사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그들은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봉헌

† 찬미 예수님! ‘작은마음’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의 첫 주일을 맞이한 오늘 가톨릭교회는 ‘주님 봉헌 축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말만 들어도 무엇을 축하하는 날인지 아시겠죠? 바로 주님이신 예수님을 봉헌한 사건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디에 봉헌한다는 걸까요? 목주기도 환희의 신비 4단이 바로 그 힌트입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하느님께서 계신 곳인 성전, 여러분이 미사를 봉헌하는 성당에 예수님을 바치셨다는 거예요. 성전에 봉헌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아기예수님을 하느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성모님께서 굳은 약속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봉헌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봉헌’이라는 말 안에는 ‘진심으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답니다. 성모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하느님께 바치셨을 거예요.

오늘 주님 봉헌 축일을 보내면서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봉헌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미사 안에서도 여러분은 많은 것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미사에 참례하는 시간과 헌금도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랍니다. 무엇보다도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미사 시간 안에서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와 그 기도를 바치는 여러분의 마음 또한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가톨릭교회 안에서 특별히 주님께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봉헌한



그림_ 최진태 임마누엘

분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누굴까요? 바로 수사님들과 수녀님들입니다. 이분들을 우리는 ‘봉헌된 사람들’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수사님들과 수녀님들은 스스로 결심해서 내 모든 삶을 하느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약속하신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신부님이 기억하자고 했던 두 가지, 잘해볼 수 있겠죠?



7지구 답십리 성당
박성준 프란치스코 신부님



오늘 복음에서 성모님은 예수님을 어디에 봉헌하셨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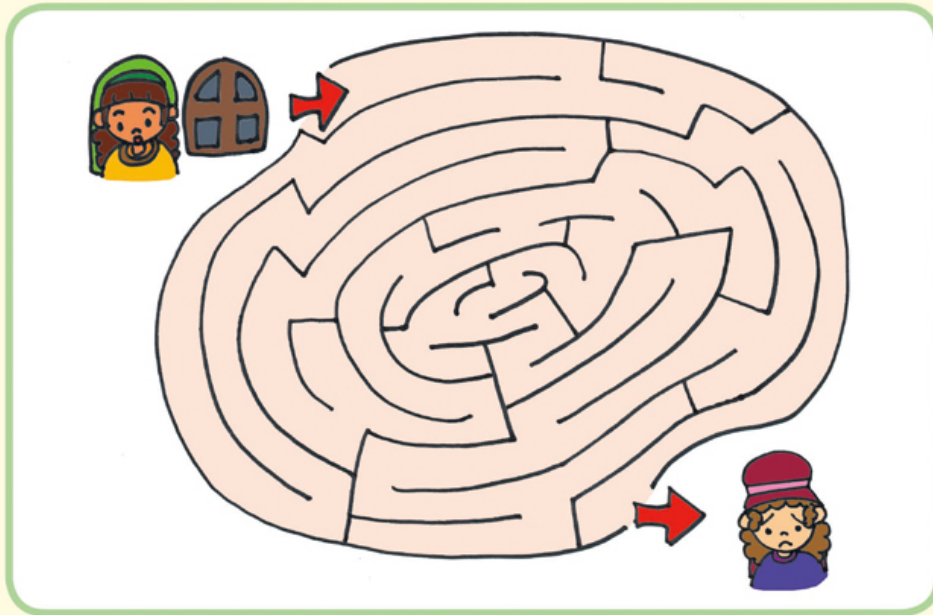
- ① 마굿간 ② 학교 ③ 성전 ④ 궁전

도란도란
성경이야기

다윗이 죽을 고비를 넘기다 (사무엘 상 19,8-17)

사울은 전령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며,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칼이 남편에게 “오늘 밤 당신의 목숨을 건지지 않으면,
내일은 죽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일러 주었다.
미칼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니, 목숨을 건졌다.

* 성경을 읽고 창문으로 내려가는 다윗을 따라가 보세요.



그림_ 송민경 도로테아



문/그림_ 김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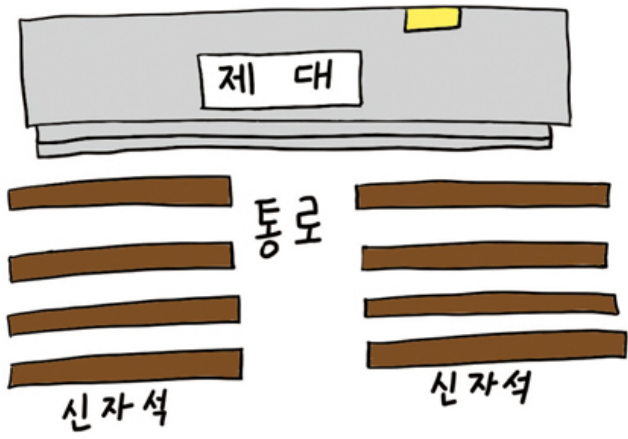


★ 관찰자: 1 학년 이름 최고야

★ 관찰 기간	2020년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 관찰 주제	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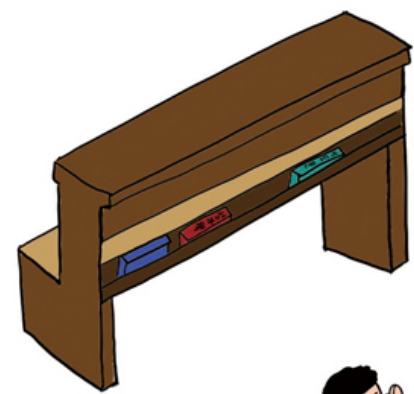
관찰 내용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운데
통로가 있고 양쪽으로 의자가 있다.



이 의자들은 신자들이
앉는 '신자석'이다.

신자석 등을 기대는 쪽
아래에는 공간이 있는데
성가책과 기도문이 있다.



새롭게
발견하거나
알게 된 점

어떤 성당은 장제들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사용한다.